

# 중년 기혼 남녀의 전통 가족 의례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 Traditional Family Rites and Family Systems in Contemporary Korean Families From Middle-Aged Koreans' Perspective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부 교수 성미애\*\*  
Korea National Open Univ.  
Associate Professor : Sung, Miai

---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changes in Korean family structures by reflecting on the perception of traditional family rites and family system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married middle-aged men (9) and women (8) who had at least one child.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both married middle aged men and women internalized Confucianism. They thought that the head of household, who was male as far as possible, was needed for the formation of a normal family. In addition, both of married middle-aged men and women recognized married women as outsiders based on *Chul-ga-we-in-sa-sang*. And they put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ahead of couple relationships and supported *Jang-ja-woo-dae-sang-sok* (privileging the eldest son over the other children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family resources and inheritance based on Confucianism).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to support the use of *Hang-ryul-ja*, which is based on expressing the character of generation by sharing the first name, and the importance of *Jok-bo*, which is based on traditional family genealogical records. Second, even though women internalized Confucianism, they did not attach traditional meanings to memorial services for ancestors to the extent that men did and defined family members as a procreation family boundaries unlike men, who defined family boundary as original family members and procreation family members.

In conclusion, even though family laws and culture have evolved from the patrilineal family system to one which promotes gender equality, married men and women internalize Confucianism. Instead, some transformations are ev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females in terms of memorial services for ancestors and family boundaries.

---

▲주요어(Key Words) : 가족 변화(family changes), 가족 의례(family rite) 가족 제도(family system), 제례(memorial service for ancestor), 가족범위(family boundary)

---

\* 본 논문은 2009년 대한가정학회, 한국몽골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중년 기혼남녀의 가족제도 관련 가치관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교신저자 : 성미애(E-mail : eliza\_s@knou.ac.kr)

## I. 서론

본 연구는 중년 기혼 남녀가 전통 가족 의례와 제도에 대해 갖는 인식을 분석하면서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생활에서 의례와 제도는 삶의 가치관이 그대로 재현되는 부분으로, 현재 우리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및 제도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례 및 제도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이 상이하게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면 한 가족이라고 해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가족은 외면적으로는 부계가족의 원리가 약화되고 부부중심의 핵가족 이념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보다 복잡한 원리로 진행되어 일관된 한 가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인다(Sung, 2006; Ok et al., 2000; Chang, 1994 등). 따라서 현재 한국 가족에서는 어떤 일관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수준에서 편의적으로 사안을 인식하고 행동하면서, 결국은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유발하는 측면이 크다(Sung,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부계 가부장제 가족의 특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의례 및 제도인 제사, 가족 범위, 장자우대상속, 족보, 향렬사 사용(Park & Hong, 2012, 19-24) 등을 중심으로, 중년 기혼 남녀들이 이들 가족 의례 및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원래 제사는 부계 가부장제의 기본 원리인 종법사상과 부계 종족제의 확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논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언급되는 부분이다(Moon, 2007). 이런 맥락에서 조선 후기는 제사의 전성 시대라고 할 정도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의미를 갖는 제사는 죽음 이후에도 자손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문화적 장치의 기능을 수행하였다(Park & Hong, 2012, 207-208).

또한 전통적인 가족 범위는 부모와 장자, 그리고 장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직계가족이 이상형이었으며, 이 범위를 넘어서 고조(高祖)를 같이 하는 부계 8촌의 당내친까지 포함(Lee, 1986, 299)하기도 하는 등 결혼한 부부 중심의 생식가족이 아니라 촌수를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부계친까지도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외손봉사, 윤회봉사, 분할봉사가 이루어졌던 조선 전기와는 달리 조선 후기에 오면 부계 종법사상이 강화되면서 장자봉사가 규범화되며, 이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도 장자

우대상속이 보편적이었다(Park & Hong, 2012, 23). 한편 조선 후기에는 부계 친족집단의 대동 단결을 과시하였으며, 한 친족집단임을 강조하기 위해 족보를 중시하였고, 대동 향렬사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부계 친족 집단이라는 집단 의식을 가졌다(Park & Hong, 2012, 47).

따라서 현대 한국 가족이 전통 종법 사상에서 벗어나서 어떤 가족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이들 의례 및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제사, 가족 범위, 장자우대상속, 족보, 향렬사 사용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 보면서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년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이유는, 중년은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되는 존재로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일상적인 가족 의례 및 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부장적 가족 의례 및 제도에 대해 부여하는 인식을 분석하면 이들 의례 및 제도의 미래 변화 모습뿐만 아니라 전통과 근대적 가치 지향이라는 가족 변화의 스펙트럼 속에서 현대 한국 가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접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 논문의 경우 가족 의례 시행 및 제도 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 기혼 남녀가 이러한 부계 가부장제 가족 의례 및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하여, 한국 가족의 변화상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년 기혼 남녀가 가부장적 가족 의례 및 제도에 대해 갖는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심층면접법이 적절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는 현대 한국 가족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중요한 실증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가족생활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족 의례 및 제도에 대한 중년 기혼 남녀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가족상담 및 치료 현장이나 가족생활 교육 등 사회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부계 가부장제 가족 의례 및 제도

유교식 가족 의례 및 제도는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16세기경부터 서서히 정착되어 19세기에 이르러 양반 사족의 가문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의 가정에도

지 일반화되었다(Keum, 1986; Park & Hong, 2012, 19-24).

이 시기의 가족은 종법사상을 강조하며, 부계종족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면서 제사를 강조하였다. 제사는 전통 농경 사회에서 현대 산업사회라는 큰 사회변동 속에서도 그 지체 현상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문화요소 중의 하나이다(Lee, 1999).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생각 속에는 조상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조상을 잘 섬겨야 집안이 평안해 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중요시하였다(Rhee, 1999). 이처럼 제사는 단순한 가족의례의 개념을 넘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질 정도로 조선 후기부터 강조된 의례이다.

그러나 부계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사이지만, 현대에는 직업적 이동이 많은 상황에서 조상의 제사, 특히 조상의 기일을 중심으로 후손들이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며느리의 경우 본인의 조상에 대한 의례가 아니라 시댁 쪽 조상에 대한 의례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제례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남성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매년 기일이나 명절에 부계 조상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고는 있지만, 제사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통성을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메카니즘이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선 후기의 이상적인 가족유형은 가구주 부부와 가구주의 직계비속 중 장남·장손 등의 가계계승자와 이들의 배우자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이었다(Park & Hong, 2012, 19). 그리고 이 시기에는 4대조인 고조를 공동 조상으로 하는 8촌 이내의 당내친(堂內親)이 서로의 촌수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비당내친과 비교해서 집안이라는 의식이 있었으며, 이런 연유로 당내친 범위가 가(家)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였다(Lee, 1986, 299).

또한 조상숭배가 강조되면서 가계계승 및 봉제사의 주체가 되는 장남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장남의 역할을 물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의미로 장자우대상속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부계친족집단에 해당되는 문중(門中)이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되면서 족보 편찬이 강화되었으며, 문중의 일원이라는 것과 세대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향렬자 사용이 보편화되었다(Park & Hong, 2012, 46-47).

이러한 17세기 중엽 이후의 부계가부장적 친족제도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뒷받침하는 보수적 사회제도로서 유지, 존속되었다. 1912년 공포된 [조선민사령]은 친족제도에 관한 부분을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관습법이 1945년 해방되기까지 법원(法源)으로 적용되어 왔다(Lee, 1990, 24).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중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가족생활에

도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계 가부장제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가 폐지(2005)되었으며, 친족 범위에서도 남녀 간 차별을 철폐하는 등 민주적, 양성 평등적 가족 및 친족제도가 법으로 규정(1990)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의례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와 법제가 괴리된다고 인식되는 이 시점에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 2. 한국 가족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선행연구

한국 가족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Ok, 1989; Ok et al., 2000a; Ok, Sung, & Shin, 2000b; Ok & Chin, 2011; Chang, 1994)와 양계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Sung, 2006; Han, & Yoon, 2004), 가족개념을 통해서 살펴본 연구(Kim, 1995; Sung, 2006, 2009; Yoo & Yoo, 2002; Lee, 1990), 가정제례를 통해서 살펴본 연구(Moon, 2007), 재산상속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Lee & Kim, 2001),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Lee, 1988)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주의 가치는 연령과 젠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도시 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전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또한 양계화 현상을 통해서 살펴본 연구들(Sung, 2006; Han & Yoon, 2004)을 보면,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대적인 양계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떤 가치 변화를 수반한 현상이기 보다는 개인 및 가족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인 의도에서 보이는 측면도 많다.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살펴본 연구(Kim, 1995)를 보면, 1990년대에도 사람들이 전통사회에서처럼 가족을 인지하는 기준으로 혈연성, 동일거주, 부계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 여성의 경우, 가족을 이원적으로 인식하여 이념적으로는 핵가족 가치를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혈연 중심의 직계가족의 범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여성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가족 유지에 기여한 측면을 보인다(Lee, 1999).

한편, 가족관련 법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 및 친족 개념을 살펴본 연구(Sung, 2009)에 따르면, 헌법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는 결혼과 가족의 안정성 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통적 가족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을 존엄성과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면서 개인의 자유 및 권리와 자아실현을 최대화하는 서구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가족 관점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 간 상호작용은 근친 중심으로 축

소되고 있는 현 상황(Ok, et al., 2000a)에서도 조선 후기 부계친이 담당했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는 실체로 친족을 규정하고 있는 등 법에서도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중층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제례를 통해 한국 가족의 변화상을 살펴본 연구(Moon, 2007)에 따르면, 제례에 참여하는 대상이 축소되고 여성이 참가하는 경향이 증가하며, 기독교 추모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양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례 양식의 변화가 가족 및 젠더 관계의 변화나 종족 이념의 약화, 그리고 종법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연구자는 주장하였다.

재산상속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Lee & Kim, 2001)에 따르면, 중년기 및 노년기에 있는 기혼 남녀는 여전히 장남 위주의 불균등 상속의식을 보이는 등 양성 평등성을 지향하는 가족법의 상속 규정과는 달리 여전히 전통 의식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한국 가족은 법 규정과 실제 생활과의 괴리가 크며, 개인 내에서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 입장을 달리 취하는 등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중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중년 기혼 남녀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가족 의례 및 제도에 부여하는 인식을 분석하면서 한국 가족의 변화상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의 특성

#### 1.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연구방법 중 하나인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통 가족 관련 의례와 제도가 현재 수행되고 있어도 그 의례와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전통적인 의식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제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에 이르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전형적 사례 선정법을 통해 선정되었다. 전형적 사례 선택은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Cho, 1999, 28)으로, 연령과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양가 부모의 생존 여부, 양가와 의 거주지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별 새로운 내용 없이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되풀이되

는 시점에서 면접을 종료하였는데, 최종 심층면접 대상자는 17명(남성 9명/ 여성 8명)이었다.

면접은 주로 연구 참여자의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장소에서 면접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약속 장소 근처의 커피숍에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시기는 2004년 7월 8일부터 2004년 7월 29일 사이였으며, 1회의 면접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면접 소요시간은 사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보통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었다.

면접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일상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조선 후기 부계 가부장제 가족 의례 및 제도에 해당되는 제사, 가족 범위, 장자우대상속, 족보의 필요성, 향렬차 사용 등에 대한 의미와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확대되었다. 면접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양해를 얻어 소형 녹음기에 녹음하였고,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의 분석 절차

심층면접 자료는 중심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 (Braun & Clarke, 200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심주제분석법은 질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전통 가족 의례와 제도의 시행 여부가 아니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에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가족에 대한 가치 및 태도에 있어서는 한 개인 내에서도 일관된 지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편의적으로 인식한다(Sung, 2006)는 지적에 따라 계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염두에 두고, 연구 참여자가 각 사례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을 실시한 후, 전체 연구 참여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실시하면서 자료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주제를 찾아내었다. 이러한 분석 절차에서 도출된 중심 주제는 가장 의식, 출가 외인 사상, 장남 우대 상속과 제사, 조상숭배, 의례적 만남의 기회, 핏줄 의식, 뿌리 의식 등이었다. 그리고 연구의 검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학 전문가 1명과 따로 코딩 및 중심주제 도출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 때 외부 전문가와 연구자 간 불일치하는 내용은 다시 논의하여 일치를 보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3. 연구 참여자의 특성1)

1) 연구 참여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

이 연구를 위해 면접한 연구 참여자는 총 17명으로, 남성이 9명, 여성이 8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쳐 있으며, 평균 연령은 심층 면접 당시 남녀 모두 40세였다. 직업은 다양하여, 남성의 경우 교수 및 연구직(2명), 자영업(3명), 사무직(4명)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3명)가 많았으며, 고용 미용사(1명), 골프장 사무관리 직원(1명), 과외지도 아르바이트(1명), 자영업(2명)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학력은 남성의 경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졸 이상(7명)의 높은 학력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고졸(4명)과 대졸(4명)이 반반이었다. 출신지는 비교적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 서울(2명), 지방 대도

시나 중소도시(6명), 농촌(1명) 출신이었다. 여성도 남성과 비슷하게 서울(2명), 지방 대도시나 중소도시(3명), 어촌 및 농촌(3명) 출신이었다. 형제 서열은 남성의 경우 장남(3명)보다 지차남(6명)이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도 장녀(3명)보다 지차녀(5명)가 많았다.

다음, 연구 참여자의 가족 특성은 <Table 2>에 제시된 결과와 같다.

심층면접 당시 배우자의 연령은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에 걸쳐 있었는데,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39세로,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과 1살 밖에 차이하지 않았다. 남성 참여자의 배우자는 전업주부(6명)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여자의 배우자는 자영업(5명)이 많았다. 자녀는 대부분이 2명을 두었고(12명), 1명을 둔 경우가 4명, 3명을 둔 경우가 1명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8명이었다. 부모와의 동거형태를 살펴본 결과, 비동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14명의 연구 참여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있었다.

Table 1. Interview Participants' Personal Characteristics

| ID | Age | Occupation                           | Education                   | Home town | Birth Order   |
|----|-----|--------------------------------------|-----------------------------|-----------|---|
| M1 | 36  | Professor                            | Ph.D.                       | Seoul     | 3 <sup>rd</sup> / 2 sons & 1 daughter               |
| M2 | 45  | University facility management staff | College graduate            | Seoul     | 4 <sup>th</sup> / 3 sons & 1 daughter               |
| M3 | 37  | Research engineer                    | MA                          | KP city   | 2 <sup>nd</sup> / 2 sons & 1 daughter               |
| M4 | 42  | Small manufacturing business owner   | College graduate            | CN town   | 2 <sup>nd</sup> (oldest son) / 1 son & 1 daughter   |
| M5 | 42  | Small rice store owner               | Junior high school graduate | JP rural  | 4 <sup>th</sup> / 5 sons & 1 daughter               |
| M6 | 40  | Small pub owner                      | High school graduate        | CP city   | 3 <sup>rd</sup> / 3 sons & 1 daughter               |
| M7 | 39  | Office worker                        | College graduate            | KW town   | 4 <sup>th</sup> (oldest son) / 2 sons & 3 daughters |
| M8 | 38  | Banker                               | MA                          | JN city   | 6 <sup>th</sup> / 4 sons & 2 daughters              |
| M9 | 41  | University office worker             | College graduate            | KW town   | 2 <sup>nd</sup> (oldest son) / 3 sons & 1 daughter  |
| F1 | 42  | Housewife                            | College graduate            | JN rural  | 1 <sup>st</sup> / 2 sons & 1 daughter               |
| F2 | 40  | Beautician                           | High school graduate        | KP city   | 3 <sup>rd</sup> / 2 sons & 4 daughters              |
| F3 | 38  | Realtor                              | College graduate            | Seoul     | 1 <sup>st</sup> / 1 son & 1 daughter                |
| F4 | 43  | Part-time tutor                      | College graduate            | KK town   | 1 <sup>st</sup> / 1 son & 1 daughter                |
| F5 | 38  | Driving range office assistant       | High school graduate        | JN rural  | 3 <sup>rd</sup> / 2 sons & 5 daughters              |
| F6 | 39  | Housewife                            | College graduate            | Seoul     | 5 <sup>th</sup> / 1 son & 4 daughters               |
| F7 | 35  | Housewife                            | High school graduate        | KK town   | 4 <sup>th</sup> / 2 sons & 2 daughters              |
| F8 | 42  | Small beauty shop owner              | High school graduate        | KK rural  | 4 <sup>th</sup> / 5 sons & 2 daughters              |

1) 연구 참여자의 코호트 특성은 연구자의 기 발표된 논문인 다음 논문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음. 성미애(2006). 질적연구를 통한 한국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59-72.

Table 2. Interview Participants' Family Characteristics

| ID | Spouse's Age | Spouse's Occupation        | Children        | Coresidence with parent(s-in-laws) |
|----|--------------|----------------------------|-----------------|------------------------------------|
| M1 | 36           | Office worker              | 1 boy           | W/ parents                         |
| M2 | 31           | Housewife                  | 2 girls         | No                                 |
| M3 | 33           | Housewife                  | 1 girl          | No                                 |
| M4 | 38           | Housewife                  | 2 girls         | No                                 |
| M5 | 39           | Small rice store owner     | 1 boy           | W/ mother-in-law                   |
| M6 | 39           | Housewife                  | 1 boy           | No                                 |
| M7 | 35           | Housewife                  | 1 boy & 1 girl  | No                                 |
| M8 | 38           | Housewife                  | 1 girl & 1 boy  | No                                 |
| M9 | 35           | Child care center teacher  | 2 boys          | No                                 |
| F1 | 41           | Small business owner       | 2 girls         | No                                 |
| F2 | 43           | Small business owner       | 1 girl & 1 boy  | No                                 |
| F3 | 40           | Small business owner       | 1 girl & 1 boy  | W/ mother-in-law                   |
| F4 | 47           | Large enterprise executive | 1 boy & 1 girl  | No                                 |
| F5 | 43           | Small interior store owner | 2 boys          | No                                 |
| F6 | 41           | Doctor                     | 1 girl & 1 boy  | No                                 |
| F7 | 39           | Technical service worker   | 2 girls & 1 boy | No                                 |
| F8 | 42           | Small business owner       | 2 boys          | No                                 |

#### IV. 연구결과 및 해석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중심 주제는 “가정의 기둥인 남성과 출가외인인 여성”, “책임이 전제된 장남우대 상속과 장자봉사”, “자녀중심의 가족과 핏줄 의식”, “시가와외의 의례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사”, “뿌리의식” 등이었다.

##### 1. 가정의 기둥인 남성과 출가외인인 여성

중년 기혼 남녀는 1950, 60년대 출생 코호트로, 어린 시절을 전통적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보낸 세대이다. 따라서 젠더를 불문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호주제처럼 ‘가장’으로 대변되는 가정의 기둥이 되는 존재는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즐거움은 남성의 가계를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F1은 정상, 비정상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남성 가장이 가정의 기둥이 되는 것을 ‘정상적인 사회적인 틀’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가정이 있으면 가정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가정의 중심이 남자여야만, 가급적으로 남자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가정의 중심인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M9)

“저는 내 입장으로서서는 나는 아직은 내가 그 (가부장적) 사회적인 틀에서 살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회적인 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략) 그녀가 좀 편리하게 바뀌기는 하되 좀 기둥, 기둥 자체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F1)

그리고 이러한 부계 가부장적 의식 하에서 남성들은 여전히 여자형제들을 출가외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여자형제는 가정 일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한 다리 건넌 존재로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출가외인이기 때문에 친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집안 내 갈등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간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출가외인... 그것은 옛날 애한테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일단은 결혼해가지구 너무 친정의 일에 감놔라 어찌라 이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중략) 여기도 다 구성원들이 있는데 와서 너무 또 배

“나라 감 나라 하는 것도 트러블이 생길 여지가 있고...”  
(M2)

“누나들은 이제 한 다리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일이 있어도 뒤로 빠져서...” (M7)

당사자인 여성들의 경우도 평소에는 자신을 출가의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지만, 명절이나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는 주위의 반응을 통해서 출가의인임을 인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런 인식 때문에 “시댁과는 행사 있고 일이 있을 때만 통화하고 (중략) 친정 쪽은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요” (F5)라고 밝혔지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대상도 주로 여자 형제이며, 친정 일에 관여하는 것에 거리를 두면서 친정 일은 남동생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난 출가의인이에요. 원체 내가 못가니까... (그렇게 출가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친정 일은) 남동생들끼리 지내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F2)

2) 책임이 전제된 장남 우대 상속과 장자봉사

이러한 전통 가부장제 가치는 재산상속에 대한 생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현 민법 중 상속편의 법정 상속분에서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민법 제1009호)라는 규정이 있듯이 지금은 남녀 차별 없는 균등 상속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중 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M6나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속을 통해 부(富)의 대물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자녀는 독립적으로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M1을 제외하고는 젠더별 차이 없이 “큰 아들이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해야 될꺼고” 라는 M8의 진술처럼, 장남이 상속을 많이 받는 만큼, 제사 및 부모 부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환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의 장남 우대 상속을 견지하고 있었다. 즉 장남은 이후 노부모를 부양하기 때문에 우대 상속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저는 큰 아들한테 조금 더 해주겠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개가 (우리 부부를) 모셔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모셔야 되고, 그러면 모시는 데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 좀 더 해 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M7)

“그 가족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장남우대 상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큰 집은 차례도

지내야 되고 제사도 있으니까 고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F5)

그리고 이렇게 상속과 부양 및 제사를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장남 며느리가 아닌 여성의 경우 시댁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그만큼 자신이 해야 하는 물리적, 도구적 역할과 의무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는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중략) 만약에 형님이 다 (재산) 물려받는다면 형님이 그만큼 무게가 무겁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사실 처리... 처리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고 받고 싶지도 않아요.” (F1)

한편, 여성 참여자들은 친정과 시댁을 분리하여 재산상속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즉 여성 참여자 중 F1, F3, F6은 친정으로부터는 젠더 차별 없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F6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친정으로부터 상속을 받겠다는 기대는 전혀 없었다. 이처럼 대다수의 여성 제보자들은 자신들의 경우 출가의인이기 때문에 친정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황에서 제외되는 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져올 생각도 안 해요. 안 하고, 솔직히 친정도 뭐 딸들은 뭐 그런 거 가져올 생각도 안 해요. 남동생들끼리 지내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F2)

3) 자녀 중심의 가족과 핏줄 의식

연구 참여자들은 상속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족관점을 견지하면서 결혼한 가정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있어야 가정이 삭막하지 않으며, 자녀는 부부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매개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녀가 가족관계를 지속시키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집사람보다 아이들을 더 좋아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 말이 틀린 거 같지는 않아요. 부부관계를 아주 진짜로 편하게 만들어 주는 매개체가... 우리 아이들이 없는 가정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만약에 없다면은 가정 자체가 삭막하지 않을까 싶어요.” (M9)

“(부부) 둘 보다는 애까지 있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둘이 힘들 때 애들 때문에... 또 이렇게 (같듯이 해결) 되는 것도 있구. 그래서 자식이 필요한 거 같아요. 둘보다는...” (F3)

특히 남성보다 여성은 “자식 없인 못 살 거 같아요. (중략) 나는 우리 애들이 내 구원... 나는 우리 애들이 나를 구해준 것 같애. 이 상황에서 애들 때문에 모든 걸 (힘든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애.” 라는 F6의 진술처럼, 자식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면서 부부관계의 어려움,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자녀로부터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녀가 가족관계에 중요한 존재라고 해도 전통 가부장적 핏줄 의식이 남아 있어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싶은 마음은 없고 차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입양을 하지 말았어야죠” (M4) 라고 밝힌 연구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입양은 내 핏줄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입양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를 해서 얘기를, 가족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예요.” 라고 밝힌 M3처럼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가족으로 수용하는 입양 자체나 집안의 대를 잇는 남자 아이 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집안의 핏줄을 잇는 것과는 무관한 여아 입양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게 이제 어떤 내 고루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낳는 거는 아들을 원하고, 입양을 한다면 전 딸을 원할 거 같아요. 그게 뭐랄까... 왜 그렇냐고 얘길하면 글썽 (중략) 아무래도 나도 이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입양한 아이로 대를 잇는다... 그런... 대를 이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입양한... 글썽 대를 잇는다는 건 좀...” (M9)

“자식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귀찮다 귀찮다 그래도 한 명 정도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면) 입양을 해 갖구 아마 외국으로 정리하고 나갔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이 없었더라면... 딸을 입양을 했을 거 같아요. (중략) 종족 보존은 포기할 거 같구요. 그냥 자식을 예쁘게 예쁘게 잘 키워 갖구. 잘 키워 갖구 그냥 크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을 뿐이니까. 아들을 입양한다면은 되게 그 아들을 입양했더라면은 그 아들이 컸으면 되게 그 역효과가 났을 거 같아요. 오히려 막. 자기 핏줄 찾아다닐 거 같구. 그럴 거 같아서 아들은 좀 그렇구 딸을 입양해서 사는 모습 예쁘게 사는 모습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F6)

4) 조상 숭배의 제사 vs. 시가와와의 의례적 만남의 기회가 되는 제사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으나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의례 및 제도 부분에서는 젠더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제사와 가족 범위였다.

중년 기혼 남녀는 젠더를 떠나서 전통 부계 가부장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성의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제사에 대한 인식을 밝힐 때는 젠더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인,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행하던 효행의 연속(Park & Hong, 2012, 202)으로 제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통의 영육 이원관에 따라 영혼과 육신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죽은 후에도 후손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문화장치로 제사를 인식하고 있는 등 제사에 종교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의 제사를 잘 봉양하면 조상이 자신들의 가족을 잘 돌봐줄 거라는 기복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두 어정쩡하게 다른 거 내가 하기 싫은 건 안해요. (그런데 제사는) 조상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하거든요. 그 제사를 지내므로 인해서 내 마음가짐도 한번 또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고 또 글썽요 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마 좀 혼을 따라서 나의 정성이 전해지지 않을까 고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면접자: 그럼 조상 제사를 정성스럽게 하면 조상님께서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그렇죠. 돌봐주실 거라는 그러한 정신적인 거는 좀 갖고 있죠.” (M4)

이처럼 전통적인 조상숭배 사상을 내면화하고 있기에 딸 하나를 둔 M3는 “조카애가 아들이거든 이놈이 나중에 커서 작은 아버지(본인임) 제사 밥은 차려줄 수 있도록 인제 재산도, 유산도 물려준다거나 안 그러면 중간에 클 때 해외 연수라도 보내준다거나 그렇게... 제사 밥을 얻어먹어야지” 라고 진술할 정도로 조선 후기에 만연했던 제사를 위해 들이는 양자인 시양자로 형의 조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M3처럼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조카를 시양자로 들여야 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후에도 자신들이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제사를 지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바램과는 무관하게 이들 역시 조상숭배는 자



신의 세대에서는 전통적인 제사의 의미를 내면화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자녀 세대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 될 것임은 인식하고 있었다.

“(면접자: 나중에 아들이 제사를 차려주기를 기대하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가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바램은 그래요. (중략) 내가 이제 애들 키우면서 이런 걸 이렇게 그나마 하면서 지가 그걸 배우고 하지 않겠나 그런 바램만 있지 지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거까지 해라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가 이제 알아서 아버지 어머니니까 (제사를) 해야겠다 제 생각처럼 해주면 고마운 거고...” (M7)

또한 남성들은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가족, 친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측면(Park & Hong, 2012, 202)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거 같아요. 보통 만나는 기회가 드물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절 때, 그 때 만나는 데 그 때 만나서 같이 자고...” (M8)

이처럼 제사에 대해 조상숭배 및 가족, 친족 간 친목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후대에까지 영속되기를 바라는 남성과는 달리,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 의례의 주체자는 아니나 실제적으로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노동력 제공자인 상황에서, 자신의 조상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시가 조상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거의 전통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제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중략) 그냥 다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중략) 이걸 왜 해야 하나 그냥 그런 생각이예요.” (F8)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남편의 조상숭배에 대한 의지를 거스를 수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사를) 안하고 싶죠. 안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있나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중략) 전 안하고 싶죠. 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F3)

또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여성들은

남성처럼 제사에 조상숭배 의례라는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성들은 제사를, 만나고 싶지 않은 인척들을 의무적으로 만나는 의례적인 날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자신들이 주도해서 자발적으로 시가 인척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으나 의무적으로 인척들을 만나기는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제사는 의례적으로 인척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제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데 제가 남편 눈치를 보고 살잖아요? 남편 눈치를 크게 보지는 않지만, 친정 식구들 챙기는 만큼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몇 번은 봐야 된다고 봐요. 너무 안 보고 남처럼 안 보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 려면 명목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요. (중략) 남자들끼리 뭐 형제가 좋아서 뭐 만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나두.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한 번은 아무래도 봐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명절, 생일, 시부모님 생일, 제사... 그러니까 얼굴 보자 형식으로 제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F6)

#### 5) 원가족, 생식가족을 포함한 가족 범위 vs. 생식 가족만 인정하는 가족 범위

가족 범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다. “가족하게 될 땐 우리 바운더리, 내가 가장으로 있는 그 가족” 이라고 밝힌 M9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은 자신의 원가족, 자신의 생식가족을 모두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남성들은 자신의 생식가족만 가족으로 본다면 너무 단출하고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니까 좀 살아가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단지 가족 그래서 그런 거 누나들, 부모님 빼고 요렇게 와이프하고 애들만이다 너무 단출하고 너무 외로울 거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 자체가. (중략) 단지 오빠, 동생, 엄마, 아빠 이렇게 내 가족 고것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작게 보는 가족의 의미 아닌가 저는 부모, 형제까지 가족으로 보고 ...” (M7)

특히 남성들은 “원가족은 내가 살아왔던 시간만큼 가족이었으니까 그걸 없애는 것은 내가 살았던 30년간의 세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M8의 진술처럼, 생애 지속의 맥락에서 원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결혼을 통해 자신의 생식가족을 추가하는 식으로 가족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범위의 제일 처음 구성원으로 아버지를 꼽는 경우(M4)도 있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가족의 범위에 생식가족뿐만 아니라 친정부모와 친정 여형제를 포함한 F5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식가족만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 우리 요기 네 식구죠, 네 식구. (예.) 네 식구”  
(F4)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원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인식하는 남성과는 달리 생식가족에서도 부부가 아니라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 범위를 인식하고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은 내 삶의 모든 것이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열심히 산다. 특히 자녀가 있기 때문에” (F8)

이러한 자녀 중심으로 가족을 인식하는 성향은 F2의 언급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F2는 부계 가부장제 사회에서 보이는 강력한 모자관계인 Wolf(1972, 33)가 말한 자궁가족처럼 “남편도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아니에요. 나하고 자식하고... 이렇게”라고 진술하면서 자궁가족을 가족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6) 뿌리와 집단 구성원임을 알려주는 족보와 항렬자 vs.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는 족보와 항렬자  
족보와 항렬자에 대해서는 남성들에서도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족보의 필요성을 두고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M2, M4, M5인데, 이들은 족보는 내 삶에서 유용하기보다는 가치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젊은 이들은 족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족보는 미래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족보를 자주 보시는 편이세요?) 옛날엔 자주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주로 뭐 재미삼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궁금해서도 보구... 그 당시에 이제 맨 위가 누구냐서부터 보구 그리고 역사적인 게 우리 선조 할아버지 그 뭐야 역사적으로 머리 좋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찾아 보기도 하고 나하고 몇 대 손인가 따져보기도 하고... 가끔 찾아봤었어요... 저는 그거는 꼭 필요하다라기 보다는 있는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중년 이후가 되면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자기 뿌리를 또 찾게 되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애길 하지만 그 때 되면 찾게 된다고, 있어야 될 거 같애.” (M2)

반면, M9는 전혀 상호작용도 하지 않은 존재를 기록한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유명한 조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태도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생판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족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고 당시의 친족들을 엮어줄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족보보다도 어떤 자료 어떤 사물을 나타내기 보다는 자주 왕래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게... (중략) 조상님들이 뭐 하고 뭐 하고 그랬다고 해서 뭐 뼈대가 있는 자손이다 지금도 많이 따지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저희들은 별로 많이 따지지 않고 따지고 싶지 않고 그래요.” (M9)

여성 참여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은 족보에 뭐 올라가지두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 별로...” (F1)라는 진술처럼 자신들의 이름이 오르지 않는 족보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족보의 기재방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족보의 경우 딸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이 사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족보는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F5는 “족보는 내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F4도 “(족보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내 조상이 나는 어떨 땐 내 조상이 내 조상이 누구였는지 궁금하긴 궁금하더라구.”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알려주는 기록의 의미로 족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항렬자에 대해서도 M8, M6, M1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항렬자는 조상으로부터 이미 정해진 것으로 같은 세대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친족임을 알아 볼 수 있고 세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들을 낳는다면 돌림자 써야지... 그냥 순리대로 내, 나의 세컨 에디터로 태어났으니까 돌림자가 이거니까 돌림자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있잖아요. 그건 인제 맘대로,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사주팔자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마음에 지어놓으면 되지, 뭐, 아들이면 돌림자를 당연히 해야지.” (M3)

반면, 여성은 출가의인이며, 항렬자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항렬자) 거기에 일단 거기에다 거기에 맞추면은 소속감이 좀 느껴지는... 그니까는 일단 체계가 좀 잡혀 가는 것 같아요”라고 밝힌 F4, F6을 제외하고는 “굳이 돌림자를 써야 되나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라고 진술한 F8처럼 항렬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 기혼 남녀가 전통 가족 의례와 제도에 대해 갖는 인식을 분석하면서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년 기혼 남녀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민주화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며,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로 점철되는 삶을 살아온 세대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가족 의례 및 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이 부계 가부장제 가족 의례 및 제도에 대해 갖는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한국 가족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 기혼 남녀는 여전히 부계 가부장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다. 이들은 젠더를 불문하고 가정에는 '가장'으로 대변되는 기둥이 되는 존재가 있어야 하며, 이 존재는 남성이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본다. 또한 가부장제 가치관 하에서 남녀 모두 출가한 여성은 출가외인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녀관계가 우선시되며, 결혼에 있어서는 관계의 질보다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전통적 가족관점에서 자녀 중심, 핏줄 중심의 가족관을 보인다. 한편, 가부장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도 장자우대 상속을 지지한다.

이처럼 중년 기혼 남녀는 젠더를 불문하고 삶의 큰 줄기에서는 전통 가부장제 가족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계친 내의 대동단결을 보여주는 항렬자 사용이나 족보의 중요성에서는 남녀 간, 그리고 남성들 내에서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중년 기혼 남녀의 경우 전통 가부장적 가족가치를 견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조선후기처럼 부계친까지 확대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족간 상호작용이 성인 자녀 중심의 근친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Ok et al., 2000a)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사, 가족 범위 등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의례 및 제도 부분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는 거리는 두는 방향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주로 젠더 차이를 통해 보여진다. 즉 중년 기혼 남성의 경우 부모가 살아계실 때 행하던 효행의 연속으로 제사에 대해 인식하는 등 전통적인 제사의 의미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후에도 아들이 자신의 제사를 지내주기를 희망한다. 또한 가족 범위도 전통적인 가(家) 범위에 해당되는 당내친의 범위까지 포함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원가족

을 가족의 근원으로 보고 자신의 생식가족을 추가하는 식으로 인지하는 등 결혼을 통해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생식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가족과는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년 기혼 여성의 경우, 의례의 주체자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노동력 제공자인 상황에서, 제사에 대해 조상숭배의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인척들을 의무적으로 만나는 의례적인 날로만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조상숭배 의례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남편의 조상숭배에 대한 의지를 거스를 수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준비한다. 또한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생식가족만을 가족의 범위로 인식하는 등 전통적인 가(家)의 범위와는 달리 생식가족이라는 소규모로 가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핵가족을 가족 범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년 기혼 여성 역시 전통적 가족관점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서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서구의 근대적 가족 가치를 지지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족가치에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근대적 가치를 지지한다는 연구결과들(Ok et al., 2000a, 2000b 등)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족관련 법(예: 양성평등적 친족 범위 규정, 호주제 폐지 등)이나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부계 가부장적 제도에서 벗어나 민주적, 평등적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중년 기혼 남녀의 인식은, 비록 조선 후기처럼 부계친 범위까지 확대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계 가부장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나 확대된 가족 범위 등은 실생활에서 여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성의 편의성에 따라 변형적인 형태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 가족에 대한 가치 변화 방향은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인식될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 가부장제 가치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치 변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적 인식은 현재 중년 부부의 실생활에서는 갈등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세대를 대상으로 부부친밀감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젠더별 제사나 집안 행사에 부여하는 인식 차이 및 실제 수행상의 어려운 점 등을 부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서는 드러나기 힘든 전통 가족 의례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서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맥락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 방

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녀세대가 갖고 있는 전통 가부장적 의례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자녀세대에 해당되는 성인 전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전통 가부장적 의례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젠더별로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 Chang, K. S.(1994). Family and political life. In *Families and Korean society*. Korean Social Research Society for Women (ed.). Seoul: Kyungmunsa.
- Cho, Y. H.(1999). *Qualitative research*. Seoul: Gyoukgoahaksa.
- Civil Law. Republic of Korea Law (2005, last amendment in 2012)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B%AF%BC%EB%B2%95#liBgcolor2>.
- Han, G. & Yoon, S.(2004). The bilateralization of the kinship relation in Korean Families: Focused on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2), 177-203.
- Keum, C.(1986). Philosophical basis and religious meaning of ancestor worship in confucianism. *Journal of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18(1), 73-78.
- Kim, G.(1995).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family concept and value. *Family and Culture* 7, 213-255.
- Lee, G.(1988). *A study on the continuity and change in Korean kinship relations -based on urban middle class nuclear family*.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Lee, H. J.(1990). *Korean family*. Seoul: Kkachi.
- Lee, J.(1999). Modern transformation of Korean family: Feminist analysi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15(2), 55-86.
- Lee, J. & Kim, M.(2001).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inheritance among married people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4), 151-165.
- Lee, K. G.(1986). *Structural analysis on Korean family*. Seoul: Ilgisa.
- Lee, K.(1999). A study on the ancestral ritual in Korean society. *Folkloristic Studies*, 9, 143-167.
- Moon, O.(2007). Ancestor rites, lineage ideology and gender in modern Korea. *Journal of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40(2), 287-319.
- Ok, S.(1989). *A study on familism in comtemporary Korean famil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Ok, S. & Chin, M.(2011). Generational comparisons of family values and family life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4), 67-76.
- Ok, S., Kim, J., Park, H., Shin, H. & Han, G.(2000a). *Disintegr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family/kinship structure among the families in the Seoul area report*. Seoul: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Ok, S., Sung, M. & Shin, K.(2000b). A study on the family and kinship value in urban and rural famili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9), 1-17.
- Park, H. & Hong, H.(2012). *The history of Korean family life*.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Rhee, K.(1999). A study on the change of ceremonies of marriage and ancestor worship since liber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4(4), 153-187.
- Sung, M.(2006). Bilateralization phenomena in Korean families: A qualitative approach.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3), 59-72.
- Sung, M.(2009). A study on families and kinship concepts in Korea: A focus on family related law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4), 11-24.
- Wolf, M.(1972). *Women and the family in rural Taiw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Yoo, G. & Yoo, Y.(2002). A survey on the family concepts and values among the citizens of Seou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5), 79-94.

접수일 : 2012년 08월 27일

심사일 : 2012년 10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26일